

## 글로벌 불확실성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 금융 안정성 확보

2024년 『ASEAN+3 금융안정보고서』(AFSR) 발간 이후, 글로벌 금융 여건은 미국의 무역 및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심화되어 왔다. 2025년 2월, 미국이 주요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1차 관세를 발표한 뒤 시장 스트레스는 후속 상황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으며 4월 2일 '해방의 날 (Liberation Day)' 관세 부과 시 정점에 달했다. 특히 미 달러의 경우, 관세 정책과 재정 확대 우려 속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 지위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월부터 약세로 전환되었다. 미국 주식시장과 국채금리가 90일 관세 유예 이후 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미 달러는 여전히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무역 불확실성 외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간헐적으로 시장 스트레스를 심화시켰다.

ASEAN+3 금융시장은 대미 무역 노출과 관세 적용 수준에 따라 이러한 대외 충격에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요인을 제외하고, 역내 국채금리는 미국 국채금리에 덜 민감하게 움직였으며, 대부분의 시장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일부 ASEAN+3 경제에서 수출 지향적 기업 부문의 건전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4월 2일 관세 발표 이후,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의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미국 수요에 직접적으로, 또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간접적으로 집중 노출된 소규모 기업들은 기업 수익에 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2025년 상반기에 역내 통화들은 미 달러화 대비 전반적으로 절상되었다. 미 달러화의 안전자산 지위 약화와 미국 국채의 무위험 벤치마크 지위 상실 가능성이 ASEAN+3 지역의 금융안정에 미칠 장기적 함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과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달러화가 지금까지 주요 자금조달 통화였다는 점에서 무위험 자산의 부재는 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

고무적인 점은 ASEAN+3 지역이 비교적 견고하고 회복력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이러한 무역정책 혼란기에 진입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내 정책당국은 예상되는 무역 충격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필요시 추가 지원을 위한 정책 여력도 남아있다. 은행 부문은 충분한 자본과 건전성을 바탕으로 역내 금융안정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ASEAN+3 경제에는 여전히 취약성이 존재한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역내 GDP 대비 총부채 비율이 소폭 상승했으며, 이는 기업과 정부의 차입 증가에 기인한다. 중소기업의 부채 리스크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관세와 같은 충격으로 인해 촉발된 글로벌 수요 둔화는 이러한 부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수출 민감 산업에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원자재 및 제조업 부문의 비상장 중소기업들은 위험부채 수준이 높아, 금융시스템의 이들 기업에 대한 노출 정도(exposure)를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재개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유가 상승 가능성은 이러한 흐름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역전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역내 시장으로 파급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2022-2023년 통화긴축을 포함한 글로벌 통화정책 충격이 ASEAN+3 금융안정에 미친 영향을 검토한다. 이 기간 역내 금융시장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시스템적 위기로 확산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더욱 견고해진 펀더멘털과 적절한 정책 대응의 효과를 입증한다. 그러나 대외 노출도가 높은 경제와 부동산·건설업, 제조업, 원자재업 등 위험부채 수준이 높은 분야의 경우 취약성이 여전히 존재해, 글로벌 금리인상 재개나 자국 통화 절하 시 부정적 영향을 받기 쉽다. 또한 금융기관의 시장위험 노출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금리 충격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

한편, 은행 서비스의 디지털화는 역내 전반에서 계속 가속화되고 있다. 디지털화는 효율성, 편의성, 그리고 금융포용성을 개선한다는 이점을 제공하는 반면, 새로운 리스크를 초래하거나 은행업의 전통적인 리스크의 성격과 분포를 변화시킨다. 제3장에서는 역내 금융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금융안정성에 대한 함의를 살펴본다. 사이버보안 위협, 서비스 중단, 사기 등의 운영위험이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비금융기업의 디지털 बैं킹 서비스 진출 증가와 이에 대한 의존도 확대는 시스템 위협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금융포용성 목표를 추구하는 일부 ASEAN 국가에서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기관들이 보다 높은 신용 및 경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미국의 높아진 정책 불확실성이 ASEAN+3의 성장 전망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의 상당한 약세는 대외 과급효과를 완충하고 수입 물가 상승을 억제하며 정책 여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각국은 국내 여건에 맞춘 정책 조합을 신중히 운용해 정책 여력을 유지하고 대외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해야 한다. 통화정책은 광범위한 경기 둔화 상황에서 경제 전반을 지원하고, 재정정책은 취약 부문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채 누적 등 금융안정 이슈 발생 시 거시건전성 조치도 통화 및 재정정책을 보완할 수 있다.

미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에 대한 우려는 일부 자본 흐름을 ASEAN+3 지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다. 이는 역내 금융안정에 일정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당국은 잠재적인 자산 가격 왜곡과 과도한 신용 증가에 대해 경계심을 유지하고 감시 및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역내 금융통합의 강화는 ASEAN+3 지역의 주요 자금조달 통화로서 미 달러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부터 비롯된 취약성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단기 변동성을 관리하는 동시에, ASEAN+3는 글로벌 충격으로부터의 과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정책 프레임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제2장). 가속화된 디지털화로 금융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 혁신과 금융안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체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제3장).

EN

ID

MS

ZH

JA

KM

KO

LO

MY

TH

VI